1. Chillstep/Post Dubstep - 나른한 느낌의 Chill Out 음악과 Dubstep이 결합되어 나온 장르. Chill은 본래 심신을 쉬게 한다는 표현, Dub은 리듬의 종류로 래게 리듬의 파생에 깊게 관여. 칠아웃은 본래 클럽내 화장실이나 파우더룸과 같은 휴식공간에서 듣던 음악으로 리프레쉬하기 위한 음악. 리프레쉬를 위한 칠아웃 음악 사운드의 핵심은 첫째, 공간감이 느껴지는 리버브같은 공간계 이펙터의 적극적 활용. 둘째, 악기의 구성과 음악의 구성의 단순화 즉,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것. 덥은 킥과 스네어 드럼이 넓게 움직이는 느린 하프타임 느낌의 리듬이다. 넓게 움직이는 킥과 스네어 사이를 변칙적 리듬으로 쪼개는 음악이 덥스텝이고 이런 스타일은 요 근래 유행한 퓨처 베이스의 탄생과도 연관이 있다. 칠아웃과 덥스텝의 조화로 생긴 것이 칠스텝 음악이다. 칠스텝의 또다른 용어는 포스트 덥스텝인데 사운드와 구성을 단순화시킨 대신 기성음악에 없는 사운드와 감성으로 채워진 음악이다. 포스트 덥스텝은 현재는 칠스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되어버렸지만 그 뿌리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칠아웃의 핵심을 사운드의 공간감과 구성의 미니멀리즘으로 볼 수 있는데 칠스텝은 사운드의 공간감을, 포스트 덥스텝은 구성의 미니멀리즘을 차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 대표적 아티스트 : Blackmill, James Blake, Mount Kimbie

2. City Pop -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일본에서 유행하던 일본 팝 음악을 지칭하는 장르. 서양의 알앤비, Funk, 팝 등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다. 기성 영미권의 팝 음악과 다른 점은 멜로디와 화성이 상당히 풍성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다. 또한 808 베이스와 같은 가상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기존 밴드의 사운드보다는 좀 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음악이 되었다. 시티팝 음악적 특징은 브라스에 의한 리듬섹션이 화려하고 베이스와 드럼에 의한 리듬의 펑키함이 돋보이며 건반이나 보컬에 의한 멜로디, 화성이 감미롭다는 것이다. 한동안 일본 대중음악의 경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시티 팝은 융성했었다가 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경제 시기 이후, 쇠락하기 시작했다. 밝고 행복한 정서가 주를 이루다보니 시대의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서 쇠락하게 된 듯 하다. 시티팝은 2000년대에 일본식 일렉트로니카인 시부야케이에게 그 음악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 2010년대 들어서서 레트로 부흥이 일어나면서 요즘 젊은 층에게 다시 한번 회자되게 되고 현재 새로운 음악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 대표적 아티스트 : 마리야 타케우치, 토시노부 쿠보타, 백예린, 아도이(ADOY)

3. Tropical House/Moombahton(뭄바톤) - 기본적으로 미니멀한 사운드 구성과 간결한 보컬 라인이 핵심인 딥하우스의 하위장르이다. 딥하우스에 열대 해변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의 리듬이 조합된 음악이다. 정확한 장르명은 뭄바톤이 맞는데 요즘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한다. 미국 남쪽바다인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트리코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래게톤과 남미의 리듬 바차타, 이 두 가지 리듬이 혼합되면서 발생한 리듬으로 보고 있다. 유럽과 미국외의 제3세계에서 파생된 음악이 전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장르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년 후반~2000년대 초반 인도풍의 멜로디가 팝음악에 차용된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케이팝 곡에도 뭄바톤 장르의 음악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다.
♣ 대표적 아티스트 : Major Lazer/DJ Snake, 방탄소년단, 아이즈원, (여자)아이들, Ed Sheeran

4. New Jack Swing - 테디 라일리(Teddy Riley)라는 프로듀서를 위시해서 시작된 장르로 1986년 쟈넷 잭슨의 앨범 'Control'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알앤비, 랩, Funk/디스코 등이 결합된 음악으로써 본래 흑인들 사이에서만 소비된던 알앤비, 힙합을 대중적인 팝음악으로 발전하게 한 장르. 스윙처럼 유연한 리듬을 구사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라는 의미로 Swing과 대표적 남성명사인 Jack을 이용해 뉴 잭 스윙이란 장르명을 만들게 됐다. 사운드적인 특징을 보자면 롤랜드사에서 나온 TR-808이란 드럼머신에 의한 드럼 사운드가 특징적이고 샘플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러 효과음이나 비트를 적절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선 서태지와 아이들이 1집 때 뉴 잭 스윙 스타일을 선보여 크게 히트했다.
♣ 대표적 아티스트 : Janet Jackson, Bobby Brown, Michael Jackson, Bruno Mars, 서태지와 아이들

5. Jazz Fusion/Jazz Rock - 1960년대 말 재즈의 하모니와 즉흥연주에 락, Funk, 알앤비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혼합을 통해 탄생된 장르. 한 악기가 반복되는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다른 악기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주를 하거나 기성 재즈 음악과는 다르게 일렉트릭한 사운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장르의 포문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베이시스트들의 우상 자코 파스토리어스(Jaco Pastorius)가 소속된 웨더 리포트(Weather Report)도 유명한 재즈 퓨전 아티스트 중 하나이다. 요 근래 기성 팝음악을 매우 복잡한 화성과 음악적 구성으로 새롭게 편곡해서 화제가 된 더티 룹스(Dirty Loops)같은 팀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대표적 아티스트 : Miles Davis, Weather Report, Dirty Loops

6. Dream Pop/Ambient Pop - 1990년대 초반 영국의 인디음악씬에서 파생된 장르. 80년대 MTV의 출범으로 인해 상업화된 락음악에 염증을 느끼던 락팬들은 새로운 사운드를 찾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언더 클럽에선 가공되지 않은 사운드를 가진 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후대에 이러한 무브먼트를 일컬어 '얼터너티브'(Alternative)라고 하였다. 이는 '대안'이라는 뜻으로 음악장르가 아닌 음악에 대한 기조라고 볼수 있다. 상업화된 음악에 대한 대안으로 발생한 새로운 음악은 미국 시애틀에서 '그런지'(Grunge)가 되었고 아일랜드의 더블린, 영국의 런던에서 드림팝(Dream Pop)이라는 장르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그런지는 너바나라는 밴드의 메가히트와 함께 전세계적인 조류가 된 반면, 드림팝은 여전히 매니아적인 음악으로 남게 되었다. 드림팝을 일컬어 슈게이징(shoegazing)이란 장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공연중에 기타리스트가 관객을 보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일체 배제하고 기타 사운드에만 집중한 채 자신의 신발(shoe)만 응시(gazing)하며 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대중적이고 비타협적인 음악이라는 뜻.
드림팝의 본질은 Chill함이 느껴지는 공간감인데 90년대의 드림팝과 현대의 드림팝은 그 chill함을 표현하는 테크닉이 다르다. 과거의 드림팝은 고출력 사운드의 연속성을 통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의 산, 소리의 바다를 대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여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반면, 현재는 그보다는 좀 더 미니멀한 구성과 공간계 이펙터의 사용으로 chill함을 표현한다.
♣ 대표적 아티스트 : the XX, Sigur Rós, My Bloody Valentine

7. Neo Soul - 재즈와 Funk, 힙합, 일렉트로닉에서부터 팝, 퓨전, 아프리칸 뮤직까지 다양한 요소가 융합된 장르. 80년대 미국의 프린스와 영국의 샤데이(Sade)같이 기성 흑인음악의 포맷을 거부한 아티스트들에 의해 그 모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프린스는 본래 새로운 사운드를 추구하던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었고 다양한 흑인 프로듀서들과의 조우를 통해 새로운 소울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샤데이는 영국 알앤비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며 브랜드 뉴 헤비스, 자미로콰이 등의 영국출신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흑인음악 트렌드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자양분이 결과물을 낳은 것은 90년대 들어서서 디안젤로(D'Angelo), 에리카 바두(Erykah Badu), 맥스웰(Maxwel), 로린 힐(Lauryn Hill)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크게 히트하면서였다. 네오소울이 그 당시 다른 흑인음악과 가장 다른 점은 프로듀서 중심, 힙합과 같은 드럼 머신/샘플링 중심이 아닌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라는 것이다. 네오소울은 재즈와 Funk, 아프리카 음악의 요소가 연주에 스며들어 있다. 90년대에 황금기를 보내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영 이전과 같은 판매고를 올리지 못하다 점점 쇠락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0년 디안젤로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2집 앨범 'Voodoo'를 발매하고 다시금 화제를 끌어모으게 된다. 요즘엔 the Internet과 같은 신흥 뮤지션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선 뒤늦은 힙합의 유행과 더불어 네오 소울 장르가 크러쉬, 딘과 같은 아티스트들을 위시해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래 네오소울과 힙합은 음악의 제작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장르인데 그 둘이 합쳐진 양상을 보인다. 쉽게 말해서 연주자의 연주기법과 비트메이커의 트랙을 만드는 과정이 융합되어 시너지를 내는 느낌이다.
♣ 대표적 아티스트 : D'Angelo, Maxwell, the Internet